

'23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개최

| 연 번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 | | | 회의형태 | | |
|--------|------|--------------|-----------------------------|------------|-------------|----------------|------|-----|----|
| | | |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 방송사 | | 총 인원 (명) | 대면 | 온라인 | 서면 |
| | | | | 경영진 (명) | 경영진 외(명) | | | | |
| 1 | 5.23 | 조선대병원 회의실 | 9/12 | 4 | 1 | 14 | ○ |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고아라·곽선희·노동일·송경용·오광호·이상길·임동훈·조경완·최정욱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0 | 5 | 4 | 1 | 0 | 10 | 0 | 10 |

나. 사업자 반영(건수)

| 구 분 | 수 용 | 의견참고 | 반 론 | 계 |
|-----|-----|------|-----|----|
| 건 수 | 10 | 0 | 0 | 10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월 |
|------|--|--|--------|
| 보도 | 혈세 낭비에 관심 지속 필요 |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5.25) -<뉴스투데이> 광주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 9일 개통(6.5), <뉴스데스크> 횡령액 2백만원 이상만 경찰 고발?(5.30), 도지사·공무원노조 공식 사과(5.25), ‘가짜뉴스라더니..’(5.31) 등 보도 조치 | ’23.5. |
| " | 환경 문제 관심 갖고 보도 바람 |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5.25) -<뉴스데스크> 기후위기 공동대응 나선다(6.2), “좁강을 아시나요?”(5.31), 가뭄뿐만 아니라 홍수대비도(5.26) 등 보도 조치 | " |
| " | <시사 ON>, 실시간 라이브 QR코드 안내가 짧아 아쉬움 |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5.25) -QR코드 노출 시간 확대 조치 | " |
| " | <시사 ON>, 자료화면 부족 아쉬움 |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5.25) | " |
| " | <시사 ON>, 5.18 관련 토론 심도 있는 부족 아쉬움. 다양한 패널 참여를 기대함 | -시사보도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5.25) | " |
| 교양 | <본방을 보자> 해태 타이거즈 야구가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내용은 비약적임 |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5.25) | " |
| " | <본방을 보자> 오픈 채팅방에 많은 사람의 말이 섞여 혼란스러움 |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5.25) | " |
| " | <본방을 보자> 문화예술 관심 지속 바람 |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5.25) -<본방을 보자> 밤 산책하며 만나는 특별한 공간! 별밤미술관(5.31) 등 방송 조치 | " |
| " | <테마기행 길>, 진행자 잔잔한 목소리가 지루함을 느끼게 함 |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5.25) | " |
| 연예오락 | <문화콘서트 난장>, 출연자 인터뷰 구성 바람 | -편성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5.25) | " |
| 총 건수 | | 10건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 청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치일자 | 비고 |
|----------|---------|------|----|
| 해당 사항 없음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 성 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비고 (임기)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 상시의견수렴방법 | 내용 |
|----------|----|
| 해당 사항 없음 |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 고 | 반 론 |
| 보도 | 혈세 낭비에 관심 지속 필요 | 지산나들목 폐쇄 대신 재활용, 지산 나들목 책임 묻는다 등 보도를 했으며 혈세 낭비 사례에 관해 보도를 이어가겠음 | ○ | | |
| " | 환경 문제 관심 두고 보도 바람 | 영산강 기름 둑동, 중앙공원 팔색조 포착 등 관련 보도를 했으며 환경 문제에 관해 보도를 지속하겠음 | ○ | | |
| " | <시사 ON>, 실시간 라이브 QR코드 안내가 짧아 아쉬움 | 실시간 라이브 QR 코드 노출을 최소 1분 이상 유지하도록 개선하겠음 | ○ | | |
| " | <시사 ON>, 자료화면 부족 아쉬움 | 토론 패널의 발언 내용을 미리 조정 |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 고 | 반 론 |
| | | 해 영상 화면이 매칭되도록 노력 중임 | | | |
| " | <시사 ON>, 5.18 관련 토론 심도 있는 부족 아쉬움. 다양한 패널 참여를 기대함 | 출연 패널 숫자는 4명 이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패널의 다양화는 추진하고 있음 | ○ | | |
| 교양 | <본방을 보자> 해태 타이거즈 야구가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내용은 비약적임 | 제작진 의도는 타이거즈의 야구가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 요소요소에서 지역민과 애환을 같이 한 역사가 있었고, 지역민의 시대적 아픔과 설움의 해방구로 역할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의미를 담았음 | ○ | | |
| " | <본방을 보자> 오픈 채팅방에 많은 사람의 말이 섞여 혼란스러움 | 추후 오픈채팅방 운영은 제작진(방장, 방관리자)의 효율적인 개입과 관리로 시청자의 의견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 | |
| " | <본방을 보자> 문화예술 관심 지속 바람 | <본방을 보자>는 지역의 문화 예술인, 관련 행사 및 이벤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음. ACC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가 취재할 계획임 | ○ | | |
| " | <테마기행 길>, 진행자 잔잔한 목소리가 지루함을 느끼게 함 | 아이템이나 방문 현장에 따라서 다소 분위기가 처지기도 하고 즐거운 체험 현장이나 활력이 넘치는 공간에서는 또 그 분위기에 잘 맞추기도 하는데 더 흡입력 있는 소재와 공간을 찾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음 | ○ | | |
| 연예오 락 | <문화콘서트 난장>, 출연자 인터뷰 구성 바람 |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나, 프로그램 구성상 꼭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인터뷰 구성을 포함해 제작하도록 하겠음 | ○ |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5월)

| | | | | |
|-----|-----|---|-----|-----------|
| 일 시 | | 2023. 5. 23. 화. 오후 5시 | 장 소 | 조선대병원 회의실 |
| 참석자 | 위원회 | 고아라, 객선희, 노동일, 송경용, 오광호, 이상길, 임동훈, 조경완, 최정욱(9명) | | |
| | 회사 |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 |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오늘 시청자위원회는 조선대병원에서 하게 됐다. 초청해주신 임동훈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5.18 관련해 지역 내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잘 치러졌다. 광주MBC 보도를 일주일간 집중해서 봤다. 지역 사회에 제일 좋은 것은 비가 와서 가뭄이 해결된 것이다. 광주MBC 생수 백만 병 캠페인은 부산에서까지 도움을 줬다. 지역민을 위한 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광주는 한국현대사에서 비중이 큰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중요한 뉴스가 생긴다. 보도 제작한 것을 잘 봤다. 무안공항 문제가 일보진전이 됐다. 광주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5.18 때는 전두환 손자가 진정성을 보여 동정 어린 사랑을 받은 거 같다. 분주한 5월이 저물어 갈 텐데 아울러 시청자위원회도 지난 1년이 지났다. 위원님들 잘 협조해주셔서 역할을 다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위원장님 포함해 여러 위원님 뵙게 돼 반갑다. 어제 부산에서 전국사장단 회의가 열렸지만 바로 달려왔다. 오늘 조선대병원에 와서 시청자위원회를 열게 됐다. 초청에 감사드린다. 의료 핵심 기관이기도 하지만 2천여 명 광주 가족들의 중요한 공간이라는 걸 느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25일에 11만 병을 전남도에 전달한다. 부산지역 기업인이 우리 지역을 돕기 위해 직업 생수를 가지고 와서 전달하기도 했으며, 완도군에 33만 병을 전달했다.
- 조경완 위원장 : -업무보고를 먼저 듣겠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하순고인돌축제 축하쇼>, <2023 풍류달빛공연>, <담양대나무축제 축하쇼>, <구례군 민이 묻고 김순호 구례군수가 답하다>, 5.18 특집 <어머니의 노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녹화가 최근에 진행됐다. 한국PD연합회 광주전남지부 올해의 프로그램상에 <레드디쉬>가 대상을 받았으며, 공로상은 객판주 국장이 받았다. 주요 계획으로 <2023 풍류달빛공연> 제2편 녹화가 5월 25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있으며, <영산강 그란폰도> 중계방송이 5월 28일 영산포 둔치체육공원에서 있다. 김치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아시아문화전당재단, 동구청 공동기획 <문화콘서트 난장>도 제작 예정이다. 연중 캠페인 <영산강> <무등산을 사랑하자> <더불어 삽니다>를 계속한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광주·목포·여수MBC가 공동 방송을 했다. 기자들이 총출동해 5.18 기념일을 공동 취재하고, 서울MBC 뉴스데스크에 TOP으로 5.18 전야제 소식 등을 방송했다. 5.18 43주년 기획 연속 보도 '위대한 연대' 집중 취재 보도했다. 디지털 뉴스 콘텐츠 첫 방송을 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 지원을 계기로 '뉴~스텐바이' 제작 송출했는데, 디지털뉴스룸 구축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 꾀하고 있는 중이다. 현직 기자들이 그날의 뉴스와 취재기를 쌍방향 소통 형식으로 제작하고,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5시 TV뉴스에 이어서 방송을 이어가는 형식이다. 광주문화방송 빛가람센터를 개소해 공공기관·시군 뉴스 취재를 강화하고자 한다. 취재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업 분야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확대 생산한다. 광주·목포·여수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광주MBC 유튜브 구독자가 5.18 기점으로 7만 명을 돌파했다. 광주·목포·여수 통합 뉴스 채널 운영을 위한 3사 보도책임자 협의를 지속하겠다. 5.18 당일 <시사용광로>를 광주·목포·여수에서 공동 방송했으며, 뉴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력기자 채용을 준비 중이다.
- 고아라 위원 : -전반적으로 방송이 좋았다. 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과 같이 시청했다. 5.18을 인식할 기회

가 되기도 했다.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까 <난장>을 보게 된다. 다양한 연령대 뮤지션이 출연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바로 반영이 되었다. <문화콘서트 난장>은 실력 있는 출연자들의 라이브 무대다. 이번 회차는 다양한 연령대의 뮤지션 및 다채로운 사운드의 밴드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음악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카메라 구도와 전환에 뮤지션의 생생한 표정이 담겨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다만 진행자가 없는 포맷이라도 뮤지션의 간단한 인터뷰 등이 가미되었으면 더 좋겠다.

-<본방을 보자>에서는 타이거즈와 5.18과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엮었다. 5.18에 대해 인지가 부족한 10대 20대들에게 다시 한번 색다르게 5.18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접근이 매우 좋았다. <테마기행 길> 부산 편에서는 부산의 볼 곳 먹을 곳을 테마에 맞추어 다양하게 보여주고, 명인을 만나 막걸리 제작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하지만 전체적인 BGM도 잔잔하고 진행자의 목소리 톤이 잔잔해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객선희 부위원장 : -<본방을 보자> 뉴스본방 시작 전 스마트피싱 인터넷주소 문자 링크는 절대 하지 마시고 조심하라는 멘트는 좋은 정보였다. “KTX 예매 하늘의 별 따기, 호남 차별 의혹” 뉴스 본방을 보면서 호남선 철도 수송량이 경부선 절반 이하이며, 일반 ktx의 절반 수준인 377석 정원의 산천 운행이 평일 46편, 주말 48편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소식 접하며 항상 매진이 많은 이유 알게 되었다. 경부선 운행 현황과 비교하면 인구가 30만 명 적은 울산 왕복보다 10회가 적게 운행되고 대구 부산 등 경부선의 절반 이하로 운행되고 있다는 소식 접하며 명백한 지역 차별 상황에 화가 났다. 오죽했으면 시장까지 나서서 증편촉구 결의대회를 하게 된 현실을 자각하며 최소한 인구가 광주보다 30만 명 적은 울산 수준까지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바람에 그마저도 그렇게 힘드나 싶어 자괴감이 들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시행정책에 대한 시행규칙 정리 내용을 보며 보행자 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써, 우회전시 잠깐의 일시 정지 필요에 대해 주지시켜 주어야 할 소식이며 유익한 정보였다. 민주시민 본방토크 송기석 변호사 초대시간에 송영길 의원 기자회견평가 내용 중, 탈당 등 하겠다지만 돈 봉투로 인한 이미지 손상,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새로운 타법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 들었으며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형태는 많은 지지를 해줬던 호남인으로서 점점 실망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자질 문제 발생원인은 당원 100% 선출의 원인과 양당체제의 문제점 같아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 지산나들목 활용계획을 다시 다뤄주셨지만, 언론에서 앞으로도 계속 혈세 낭비에 관한 관심 가져 주셔야 할 듯하다. 전광훈 목사 5.18 망언 왜곡 발언 고소 소개와 함께 5.18 폄하 발언 등 터무니없는 주장 다뤄주어 광주시민으로서 공분을 느끼며 법의 심판 받기를 희망해 본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한 절차를 위해 탈당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 복당은 위장 꿈수 탈당인데 패널 티 받지 않은 것은 민주당 스스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정의당의 “무상 교통 운동본부 출발”은 월 1만 원 정기권 정책지원 실행을 위한 것이지만 시내버스 지원금을 시에서 보조하며 많은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지원방법을 좀도 고민하며 운동본부를 출범하였으면 한다.

- 노동일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국내 유일 관광 극장인 광주극장이 지난해 칸 영화제 수상작 4편 상영 소개와 최고의 수상작인 황금종려상 수상작 소개, 75년 만의 첫 특별 기념작품인 지난해 수상작 토리와 로키타 등 자세한 내용소개를 뉴스본방 때 해주셔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작품성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광주극장이 있어 문화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았다. 문화예술에 관한 소개를 지속해주길 바란다.

- 송경용 위원 : -<광주MBC 뉴스데스크> ‘기아 광주공장에서 20대 사회초년생, 손가락 절단에 준하는 큰 부상’ 보도에 관심이 갔다. 기아 광주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청년이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청년은 대기업과 학교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직으로 고용된 사회초년생이었다. 기아 직원과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2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민주화운동 43주기를 앞두고 추모 물결이 차츰 고조되고 있다. 5.18국립묘지에는 주말을 맞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주먹밥 나누기와 정신계승 국민대회 등 5.18 기념행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모두가 함께 싸웠던 80년 5월 광주처럼 그 날의 함성도 느끼고 5월 공동체 정신의 총화로 불리는 주먹밥이 다채로운 모양과 색깔, 영

양으로 거듭나고 함께하는 대동 세상을 꿈꿨던 5월 명령들의 송고했던 염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요즘을 알려준 뉴스였다. 첨단대교 인근을 흐르고 있는 영산강에 얼룩덜룩한 기름층이 넓게 퍼져 있다. 그 위로 주황색의 오일펜스가 길게 펼쳐지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흡착포도 설치됐다. 환경 당국은 기름 유출량이 많지 않아 오염 정도가 미비하다며, 시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뉴스를 보고 시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기름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 문제에 관해 계속 관심을 두고 보도하길 바란다.

- 오광호 위원 : -<광주MBC 시사 ON> 광주 미래산업 방향은? 편에서 토론 시작 전,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라이브 QR코드 안내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QR코드를 화면 상단에 일정 시간 동안 고정해 놓는다면 시청자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차 소부장 특화단지의 필요성과 조성계획 및 역할에 대해 초반부에 잘 설명을 해주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재 100만 평 규모로 조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50만 평 추가 조성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산업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듯하다. 또한, 기존 국가산단을 만드는데 보통 10년 정도 소요되었던 반면, 이번 미래차 국가산단은 4년 안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이 기대가 크다. 이번 토론에서는 자료화면이 준비된 것이 거의 없었는데, 국가산단 선정 평가 기준 등을 나타낼 때 자료화면이 함께 준비되었더라면 더욱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토론 중반에 시청자들의 실시간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해주는 모습은 아주 좋았으며,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참여율을 높여 소통이 원활히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본방을 보자>에서 뉴스본방 코너에서 나왔던 ‘무안군,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수용 요청’ 내용과 관련하여 김영록 도지사의 발언, 그리고 무안군, 함평군의 입장을 고루 잘 이야기해주어 현재 상황과 각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충남 보령 5월의 보물’ 코너에서는 국보부터 향토 문화재까지 71곳을 지도 한 장에 표현해놓은 문화유산지도를 소개해주었는데,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화유산지도가 있으면 좋겠다 느꼈다. 또한, 리포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분이 함께 나와 설명을 해주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시청자들의 오픈 채팅방 참여율은 높아서 보기 좋았지만, 채팅창에 여러 사람의 말이 섞여 읽기에 혼란이 오기도 했다. 오픈 채팅방 참여 전, 채팅 시 문장을 한 번에 이어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되면 더 좋을 듯싶다. 마지막으로 전남 광양 백운산을 찾아가 리포터는 고사리 농사를 짓는 부부와 함께 일손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하기엔 불편한 복장인 듯싶어 아쉬웠다. 반면, 오이농장을 찾은 리포터는 농장에서 일손을 도울 때, 일 바지를 입는 등 갖춰진 복장으로 임하여 보기 좋았다.

- 이상길 위원 : -<본방을 보자>를 보면서 광주MBC가 서울MBC에 뒤처지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같다. 5.18 관련해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해태 타이거즈는 호남민의 한과 열기를 응집시키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5.18은 야구도 못하고 이런 것, 부정적일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야구가 왜 호남민에게 정치적인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긍정적이고 재미있게 봤다. 5.18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광주MBC가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임동훈 위원 : -금연 캠페인송은 광주문화방송과 광주금연지원센터가 같이 제작하여 라디오와 TV를 통해 진행하는 금연 캠페인이다. 아동 트로트 가수가 노래와 율동을 같이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딱딱할 수 있는 금연이라는 주제를 유쾌하고 중독성 있는 트로트 영상으로 재치 있게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홍보하는 시도가 매우 참신하고 좋았다. 타 권역 금연센터에서도 매우 칭찬하는 모범적인 금연 홍보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시리즈 물도 기대해본다.

-<시사 용광로> 5.18의 미래와 기억의 전승 편을 시청했다. 최근 광주시의회 젊은 시의원 5명이 ‘응답하라 1980!’이라는 5분 릴레이 발언을 통해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있던 소위 5.18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5월 18일 방영된 생방송 <시사 용광로>에서는 대표 발언을 했던 시의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의 패널이 출연하였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아직도 정확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의 처벌이나 사과가 되지 않았으며, 5.18 관련 단체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의 5.18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말하기 힘들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는 45분 간 동안 5.18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다루기에는 짧은 느낌이 들었고 향후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다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토론자로 10대 고등학생, 30대 다른 지역 초등학교 선생님, 30대 시의원,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이 출연하여 각자의 세대와 역할에서 의견을 주셨다. 향후 추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패널의 다양성 측면에서 20대의 대학생, 특히 다른 지역 젊은 세대가 참여하여 그들의 관점을 들어보면 좋겠다.

- 최정옥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류권형 사회자가 5.18 배지를 하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5.18 특집방송이었는데 타이거즈 야구 역사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았다. 또한, 해태 타이거즈의 야구가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내용은 너무 비약적이고 내용전개 및 인터뷰 모두 PD의 사건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 조경완 위원장 : -오늘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다. 시청자위원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수고하셨다.

끝.